

# 대통령과 국민의 경기 체감 온도



이정혁  
西村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 힘' 제4차 전당대회 축사에서 "작년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선데다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고, 상반기 수출이 9.1%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우리 성장률을 앞다퉀 조정하고, 2026년에는 우리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발언을 받으면 "정치는 몰라도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자화자찬에 가까운 후한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평가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지 의문이다. 수출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지만 내수 침체와 고금리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게 한가롭지만은 않은 상태다. 당장 윤 대통령 발언 이후인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경제성장

률을 보면 지난 1분기에 1.3% '깜짝 성장'을 했던 우리 경제가 2분기에는 2022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0.2%로 집계되며 '역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역성장'의 주된 요인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1분기 0.7%에서 2분기 -0.2%로, 건설투자 증가율은 1분기 3.3%에서 2분기 -1.1%로 떨어졌다. 고금리, 고물가 영향에 소비자들이 쉽사리 식품 외에는 지갑을 열지 않았고, 건설경기 부진으로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면서 체감 경기가 얼어붙은 것이다.

내수 부진 쇼크는 예상보다 골이 깊다. 코로나19 때 매출이 줄면서 한껏 받았던 대출이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 314만명의 대출 잔액은 1043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들의 이자 부담은 7조 2000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이 230만원 뛰어오르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출 창구엔 여전히 자영업자들이 많다. 은행에서 소외되면 저축은행 같은 제2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그래도 급한 사정이 이어질 경우 더 금리가 높은

대출을 찾고 있는 것이다. 올해 1분기 말 2금융권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4.18%로 집계됐다. 작년 말의 3.16%보다 1.0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대출을 갚다 갚다 더 못버티면서 폐업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개인·법인)은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6만7292명)에 비해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물가 불안도 여전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5월 연속 2%대 후반을 보였음에도 농산물, 외식 등 생활 물가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대외적인 변수도 많다. 내수를 진작하려면 고금리 해소가 시급한데 환율 불안 등으로 미국보다 앞서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어려운 처지다.

위태 위태한 경제 상황 속에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2026년에 우리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서민이나 소상공인 등을 포함해 대다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시적인 정책을 보여줘야 할 때다.

l/jnh@metroseoul.co.kr

## 박정아는 못 봐도...



김지수첩  
김연세  
(정책사회부)

때는 3년 전 도쿄. 5세트 12-14로 몰린 절체절명의 위기. 박정아의 스파이크가 일본 진영에 연속으로 내리꽂혔다. KF94 마스크 속 갑갑한 코가 땀 뚫렸다. 16년 전 일본과의 4강전. 부진을 면치 못하던 이승엽의 8회 투런 홈런포. 20년 전 패색이 짙던 문대성의 금빛 돌려차기 한 방. 22년 전 정규시간 2분 여 남기고 작렬한 설기현의 극장골. 그 이전 유남규, 양영자, 최순호, 하형주 등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

대한민국은 지난 2020 도쿄올림픽(2021년 개최)에서 1976년 이후 최저인 종합 16위로 주저앉았다. 하지만 여자배구가 선사한 감동의 여운은 오래 갔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해 보자"고 외치던 김연경의 입모양이 눈에 아직 선하다. 30년 전 FIFA 미국월드컵 조별리그. 스페인에 전방 0-2로 뒤지던 한국은 서정원의 후반 종료 직전 동점골로 무승부를 만들어 냈다. 내리 두 골 먹고 하프타임 때만 해도 그 누가 최종스코어 2-2를 예상했을까.

스포츠는 이따금 엄청난 분량의 엔돌핀을 준다. 대개 예상치 못한 시점이다 그렇다. 때론 어처구니 없는 실책 탓에 응원하던 이가 스트레스 또한 크게 받는다. 부침도 크지만 이런 맛에 보는 건 아닐까. 국사·세계사와 마찬가지로, 스포츠에도 '가장'은 의미가 없다. 1994 미국월드컵 결승전 승부차기 때 이탈리아의 스트라이커 로베르토 바조가 브라질 골대를 넘기지 않았더라면... 끝내 이겼을까. 2010 남아공월드컵 우승국 스페인. 당시 조별리그에서 스위스에 지지 않고(0-1 이변) 토너먼트 올라갔

더라도... 역사상 첫 우승 가능했을까.

오는 토요일 새벽 2024 파리하계올림픽이 막을 올린다. 우리나라 구기종목은 여자핸드볼을 제외하면 인기종목 축구와 여자배구까지 모조리 본선대회에 진출하지 못했다. 일부 서방 매체는 한국이 양궁, 수영, 높이뛰기 등의 종목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낼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관찮다. 설사 그럴 예상대로 메달 수가 좀 저조하면 어떤가. 낱고 긴다는 지구촌 베테랑들 간 경쟁이다. 메달 획득은 늘 실력뿐 아니라 운도 따라줘야 하는 법이기에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 터. 또 모른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기자가 멋모르던 2002 부산아시아게임 때다. 선수촌에서 동료와 담소 나누던 한 태권도 선수가 인터뷰에 흔쾌히 응했다. 그러고는 바로 답했다. "네, 금메달 자신 있어요." 그녀의 패기가 금 못지 않게 값져 보였다.

/kys@

오늘의 운세 7월 26일 (음 6월 2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자식이 큰 상을 받으니 기쁨이 넘친다. 48년생 행복은 고유한 것이니 내가 만족하면 그만. 60년생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72년생 기차는 달린다 씩씩하게 가던 길을 가자. 84년생 전문가의 조언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다.



37년생 자신의 게으름은 후회를 만든다. 49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우가 치는 격이니 잠시 쉬어가자. 61년생 가족 간에도 공과 사는 분명히 따져라. 73년생 모난 돌이 정맞는 법이니 자중하며 지내라. 85년생 기대를 접으니 실망도 없다.



38년생 거물이나 자세를 낮추고 상대를 대하라. 50년생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난다. 62년생 풍전등화(風前燈火)라 해도 솟아난다. 74년생 불평보다는 먼저 일을 찾으려 하자. 86년생 머리만 민다는 일을 그르친다.



39년생 속임수 가능 고대하던 것일수록 잘 살펴야 한다. 51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63년생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말조심. 75년생 가족의 무관심이 오히려 편하다. 87년생 열 개를 뿌리고 그래도 하나를 얻는다.



40년생 입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될 일도 안 된다. 52년생 지나간 인연이 늘 주변을 맴돈다. 64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 76년생 날개 뺏긴 새처럼 움직여라. 88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41년생 가까운 바다라도 여행을 해보자. 53년생 일은 쉬운데 사람 관계가 어렵다. 65년생 모든 일은 순서대로 차분하게 행하여야 한다. 77년생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있으나 오후에 해결. 89년생 가법계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비워라.



42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고 과식하지 마라. 54년생 오늘은 먹을 복이 많은 날이다. 66년생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정에 충실. 78년생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 90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활짝 열렸다.



43년생 배우자가 내게는 가장 큰 조력자이다. 55년생 뱀에게 선물을 받는다. 67년생 재혼문제는 정성력이 흐려지니 다시 더 생각하고 판단. 79년생 운이 상승하기 시작하니 무슨 일든 시작. 91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니 서글프다.



44년생 좋은 꿈을 얻으려면 별동을 손질해서 놓아야 한다. 56년생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 68년생 도난당할 수 있으니 문서보관 잘할 것. 80년생 연장자의 조언을 이치로 보아 새겨들자. 92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나를 높여준다.



45년생 앞만 보고 달리는 건 너무 힘이 든다. 57년생 멀리 있다고 소홀히 대하지 마라. 69년생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이 오히려 낫다. 81년생 열기 위해 땀을 시작하는 지금이 적기. 93년생 기다림은 길고 특별한 만남은 짧고 아름답다.



46년생 변화의 날이니 특별히 조심할 것. 58년생 진실이 항상 최선의 답은 아니다. 70년생 종로에서 뽕맛고 한강에 가서 분얼이하는 격. 82년생 주식에 빠지는 것도 일종의 도박성이니 돌아보면서. 94년생 잡은 고기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47년생 남가일몽(南柯一夢)이라도 다시 시작하자. 59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곧 좋은 일이 온다. 71년생 영원한 내 편인 부모님이 있어서 좋다. 83년생 꽃동산에서 즐겁게 노니는 격이니 행복. 95년생 복권에 당첨되면 먼저 복권을 사야.



## 김상회의四季 팔은 팔방미인

고소한 빵 맛있는 죽 쫄깃한 떡 살살 녹는 아이스크림 등 같은 음식에 모두 사용하는 식재료가 있다. 이 식재료는 사람이 몸이 아플 때는 역할이 달라진다. 음식의 재료에서 좋은 약의 재료로 변신을 한다. 음식으로도 약으로도 훌륭한 역할을 하는 신비한 곡물이 있다.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이미 즐기고 있는 주인공 바로 팔이다. 팔은 단팥빵 봉어빵을 달콤하게 하고 팔죽과 떡을 감칠맛으로 만들어 준다. 여름철 빙수는 어떤가. 팔이 빠지면 제맛이 나지 않는다. 한방에서는 팔을 적소두라고 부르는데 다양한 질병에 약재로 사용했었다.

팔이 식재료와 약재로 두루 쓰이는 이유는 사람의 몸에 좋은 성분이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어서이다. 팔은 비타민의 창고라고 부르기에 손색없을 정도로 비타민이 풍부하다. 티아민 리보플라빈 엽산 니아신 등을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티아민과 엽산의 함유량이 많다. 단백질과 사포닌도 많고 칼륨은 쌀의 10배 바나나의 4배나 된다. 섬유질이 풍부한 것도 특징이다. 팔에 많이 들어 있는 티아민 B군은 사람의 몸에서 세포 대사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성분이다. 피로를 풀어주고 기력이 떨어졌을 때 기운을 북돋워 준다.

풍부한 섬유질은 포만감을 느끼게 해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므로 몸에 부기가 있을 때 좋다. 사포닌은 피부의 오염 물질을 없애주는 성분으로 기미를 제거하니 가히 팔방미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수 없는 팔이다. 보약을 옆에 두는 것과 같다. 팔이라고 하면 누구나 동지팔죽을 떠올린다. 전통처럼 동지에 먹는 팔죽도 좋지만 이제는 팔은 사시사철 언제 먹어도 좋은 음식 재료이다. 항상 가까이 두고 즐기면 건강한 몸을 가꿀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2	8	3		9		7	
		9	5					
				6		2		
2	9							
							4	2
	5		4					
			9		7			
9		3		8	2	6	4	

###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4	8		1
				6			
3		1	8				
9	2	1			3		
		4			2	5	8
			6	1			2
			8				
4	6	9					3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48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8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